

‘순천 SAT’ 개발 본격화... 연계사업 추진

지역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지역기업 대상 ‘협력기업’ 모집

“지역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공위성 구현... 경쟁력 강화

순천시는 2027년 누리호 6호기에 탑재 예정인 순천의 첫 인공위성 ‘순천 SAT’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대학·기업·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체결한 ‘순천 SAT 개발 및 실증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우주항공 우수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리고 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순천 SAT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해당기관과 공동주관으로 진행될 이번 사업은 미래 인재양성과 기업 기술 역량 강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학생참여형 ‘순천 SAT 관측 아이디어 공모전’과 ▲기업연계형 ‘순천

SAT 개발 협력기업 발굴사업’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 사업인 ‘순천 SAT 관측 아이디어 공모전’은 순천대와 함께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학생들은 2027년 우주로 발사할 ‘순천 SAT’을 순천만천문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돕는 위성 부탑재체 설계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게 된다.

6월 19일까지 공고될 이번 공모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위성의 설계 과정에 반영되며, 수상 학생에게는 ‘순천 SAT’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단순한 체험형 교육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이 우주

산업을 ‘내가 참여하는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공모전뿐만 아니라 컨워싱 경연대회, 학생 순천 SAT 개발 참여 등 체험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사업은 ‘위성개발 협력기업 발굴사업’으로 순천시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위성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부품이 실제 ‘순천 SAT’에 탑재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우주항공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부품 기업을 6월 5일까

지 모집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해 최대 1억원의 기술 개발비를 지원할뿐만 아니라 ‘순천 SAT’을 대학과 협력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실제 위성 탑재를 통한 기술 검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우주산업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연계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지역기업의 기술력을 실제 위성개발 과정과 연결해 “지역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공위성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 SAT는 단순히 순천의 첫 인공위성을 넘어 미래세대와 꿈과 지역기업의 기술력이 함께 담긴 순천형 우주산업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우주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본 사업의 포부를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

장성,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교량·숙박시설·전통시장 등 80곳 집중 점검



장성군이 지난달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13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집중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지난 4월 20일부터 지역 내 교량 13곳과 숙박시설 8곳, 어린이놀이시설 8곳, 공장 5곳, 공동주택 5곳, 노후주택 5곳, 축사 5곳 등 총 80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기간은 오는 6월 19일까지다.

이번 회의에선 부서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 보고에 이어 시설물 점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먼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철저하게 정기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은 콘서트 등 모든 전 기시설을 사전 점검해 화재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무는 숙소도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전수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목재구조물이 많은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만큼 규정 이상으로 소화기를 배치해 화재 예방에 집중한다. 천년고찰 백양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등 사찰이나 문화재에도 소화기를 넉넉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지역 내 교량은 필요하 보수·보강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예산 확보 및 후속 조치에 주력한다.

그밖에 군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정수장은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개선해 민간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장성=김재식 기자

고흥 ‘일자리 통합플랫폼’ 본격 운영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 취업 지원 강화

고흥군은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와 지역 일자리 지원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온라인으로 고흥군 인공정책 통합플랫폼 내 일자리 홈페이지(https://goheung.go.kr/job)를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6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지난 2월에 구축한 고흥상생일자리센터를 지난

3월부터 본격 운영하며 구인·구직 상담, 취업 연계, 기업 채용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는 직업상담사 2명이 배치돼 구직자 맞춤형 취업 상담과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온오프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는 어디서든 더 쉽고 편리하게 채용 정보와 구직정보를 등록·확인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흥=천기만 기자

영광, 민·관 협력 자살예방대책 회의 개최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영광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6년 영광군 자살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광군 보건소가 주관했으며 영광군 부군수(자살예방관)를 비롯해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영광군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살 위험 신호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지역사회 중심의 생명안전망 구축 ▲주민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 마련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예방은 행정만의 역할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며 “자살예방관을 중심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앞으로도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위기 상황 시 즉시 신고·연계 체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영광=정민 기자

함평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자 모집

함평군이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함평군은 31일 “월 임대료 1만 원에 집을 빌려주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자를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함평군 ‘만원 세컨하우스’는 학교면과 해보면 각 1세대씩 총 2가구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 240만 원과 월 임대료 1만 원(2년 일시납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함평군에 전입 예정인 2인 이상 가구다. 전남도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하며, 세대원을 포함해 전라남도 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직 정규직 직원,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군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입주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함평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노길상 기자

영암, 전남 최초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입주자 모집

보증금 50만원·월 임대료 15만원... 안정적 정주여건 기대

영암군이 농어촌 의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는 지난 2022년 전남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영암읍 동무리에 지상 4층, 30실 규모로 건립됐다. 전남 최초로 조성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전용 기숙사다.

기숙사는 교대근무가 많은 간호사

의 근무 형태를 고려해 1인 1실 형태로 운영된다.

각 호실에는 옷장고 신발장,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생활 가전과 가구를 갖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 대상은 영암군 소재 민간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진도, 곳곳 대규모 꽃단지 조성... 늦봄 관광객 발길 유혹

꽃양귀비·코스모스·안개초 등 형형색색 봄꽃 절정



진도군 곳곳에 대규모 꽃단지가 조성되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꽃단지에는 꽃양귀비와 코스모스, 안개초, 수레국화 등 다채로운 봄꽃

이 만개해 지역을 대표하는 늦봄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꽃단지를 소개하면 ▲코스모스, 금영화, 꽃양귀비가 있는 백조호수공원과 나리방조제 ▲수레국

화, 꽃양귀비가 있는 보전방조제 ▲형형색색의 안개초와 꽃양귀비 단지가 조성된 근대농공단지, 진도항, 서방항이 있으며, 장소마다 다른 분위기의 꽃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은 대규모 꽃단지는 물론 진도터널, 녹진교차로 등과 같은 소규모 꽃단지에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한 초화류를 심어 ‘365 꽃피는 진도’를 실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물론, 지역 이미지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봄꽃들이 만개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진도에 방문해 꽃향기 가득한 늦봄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백재욱 기자

해남, 골목형상점가 10개소 확대... 지역상권 온기 더한다

황산면 공릉거리 신규 지정... 560여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혜택

해남군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최근 황산면 소재지에 있는 ‘공릉거리 골목형상점가’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해남읍의 고도리 골목형상점가·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 2개소의 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 4월 해남읍 ‘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와 ‘명지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해남군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개소, 560여 상가에 이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년간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확대하며, 지역상권의 기초체력을 다져왔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점포밀집기준을 기존 ‘2,000㎡’ 이내 점포 2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지정의 문턱을 낮추었다.



골목형상점가 확대 방편에 힘입어 해남군내에는 우수영 상점가(59개)를 시작으로 대흥사(50개), 해남읍 원도심(85개), 평갈마을(48개) 등 주요 거점 상권들이 속속 골목형상점가 지정되었다. 올 들어서는 해남읍 중앙1로 천변교(20개)와 명지누리(36개) 상점가가 이름을 올렸으며, 황산면의 상권 중심지인 공릉거리도 32개 점포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완료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되면 지역상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누리고 상인은 매출 증대의 일석이조

/해남=김동주 기자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최대 14% 할인 이벤트

장흥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2% 캐시백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카드·모바일 앱 결제에만 적용되며, 기존 선할인 12%에 결제 시 결제 금액의 2% 캐시백 적립을 통해 최대 14%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부정부용 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대로 12% 선할인만 적용된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지류포함), 보유 한도는 2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예산 소진 시 캐시백 추가 할인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 27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_chak을 통해 충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충전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6월 캐시백 적립 프로모션을 통해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고유가로 가중된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순천시, 장천동 도시재생 ‘몽미락 힐링투어’ 운영

순천시는 장천동에 소재한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웰니스 프로그램 ‘몽미락 힐링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3회까지는 매주 일요일, 4회차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차차루’, ‘몽미락 식당’, ‘운장고’를 연계해 이색체험, 건강식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차차루’에서는 태양계와 우주를 배우는 우주 강의와 함께 행성팔찌 만들기, 로켓 만들기, 우주레리초 만들기, 외계인 테라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몽미락식당’에서는 12가지 이상의 반찬으로 구성된 건강식 연일밥 정식 이 제공되며, ‘운장고’에서는 차와 다과를 즐기며 족욕과 보드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단체,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 15,000원이다. 회차별 소규모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신청 및 세부 일정 확인 등은 네이버 폼(https://m.site.naver.com/28zff)에서 가능하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061-749-366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민지 기자